

광주 경찰 '3대 숙원' 풀리나

〈중부서 신설·경무관 서장·동부서 이전〉

내년 정부 예산안 중부서 건설 사업비 반영...2022년 문열여 총경급 경찰서장 경무관 상향 직제개편안 국회 심의 앞뒤 동부서 신청사 건립 최종 승인 절차만 남겨...2020년 완공

광주경찰의 3대 숙원인 중부경찰서(가칭) 신설과 경무관 서장 탄생, 동부경찰서 이전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5일 광주지방경찰청과 국민의당 권은희(광주 광산을) 의원실 등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광주 중부경찰서 설립을 위한 사업비가 반영됐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토지매입, 기본설계 등에 착수해 오는 2022년 문을 열 계획이다. 또 치안 수요가 급증하는 광산경찰서에는 내년부터 경무관 경찰서장이 부임할 예정이다.

현재 총경급인 광산경찰서장의 직급을 경무관으로 상향하는 행정안전부 직제개편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2012년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현재까지 서울 송파, 수원남부, 분당, 부천 원미, 청주 흥덕, 전주 완산, 창원 중부, 대구 성서 등 전국 8개 경찰서에 경무관 서장이 배치됐다.

현재 광주는 1개 구를 1개 경찰서가 관할하는 체계로 5개 구에 5개 경찰서가 있으며, 모두 총경급 서장이 맡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그동안 북구와 광산구의 치안 수요가 급증하면서 두 경찰서의 관할을 조개 가장 중부경찰서를 신설하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두 지역을 맡는 북부경찰서와 광산경찰서의 인력으로는 늘어나는 치안 수요를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북구와 광산구의 인구·면적은 광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 경찰서 관할지역에는 국립 5·18민주묘지, 송정역, 하남산단 등 주요 시설이 들어서 있고, 택지개발로 치안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신설 경찰서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신주택 단지의 유입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광산서에는 서장(총경)의 직급을 경무관으로 높여 치안 수요에 맞는 조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높다.

이와 함께 9년 넘게 끌어왔던 광주동부경찰서 신청사 건립도 기획재정부의 최종 승인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기재부가 부지 매입을 승인하면 곧바로 오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동부경찰서 청사 이전을 위해 동구 빔고을종합사회복지관 인근 자연녹지 등 18필지, 2만4750㎡ 부지 매입을 심의하고 있다.

광주동부경찰서 경리 담당 등은 6일 기재부를 방문해 부지 매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 28일 기재부와 경찰청은

광주를 방문해 빔고을사회복지관 인근 부지를 둘러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청사 부지는 광주경찰청 청사가 지금의 광산구 소촌동으로 옮길 당시 또 이전 부지 후보로 추천됐던 곳이다.

동부경찰서 신청사 건립에는 사업비 387억원이 투입되며, 광주경찰청은 기재부 승인을 받으면 59억원을 들여 부지 매입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토지 소유주는 10여명으로, 이 중 한 명이 70~8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이 토지 매입과 함께 교통영향 평가,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친 뒤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지난 1982년 문을 연 동부경찰서는 노후 건물과 비좁은 면적 때문에 청사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 탓에 직원은 물론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순찰차마저도 청사 밖에 주차를 해야 하는 형편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8 | 해질 18:53 | 달출몰 19:01 | 달지름 05:45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고 천둥·번개가 치는 곳 있다.

◇지역별 날씨(℃)

광주	20/26	보성	20/26	해리고비	19/25
목포	22/26	순천	22/26	해리고비	21/26
여수	23/26	영광	20/26	해리고비	20/26
나주	20/26	진도	23/26	해리고비	20/24
완도	22/26	전주	20/24	해리고비	19/23
구례	20/26	군산	19/23	해리고비	19/24
강진	22/26	남원	19/24	해리고비	21/24
해남	22/26	속산도	21/24	해리고비	19/25
장성	19/25				

◇비다 날씨

지역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서	0.5	북	0.5~1.0
남부	남서	0.5~1.0	북동	0.5~1.5
남해	남서	0.5~1.0	남서	0.5~1.0
남부	남서	1.0~2.0	남서	1.0~2.0
서부	남서	1.0~1.5	남서	1.0~2.0

◇생활지수

위험	식중독	자외선	보통	보통
----	-----	-----	----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7:34	02:15
여수	간조	만조
	03:00	09:02
	15:00	21:30

◇주간 날씨

날짜	날씨	기온
20/27	☀	19/30
19/30	☀	18/31
18/31	☀	19/30
21/26	☁	21/29
21/29	☀	19/30

뽀뽀한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보상 판결 '항소'

미쓰비시중공업이 지난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5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 달 30일과 이날 광주지법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광주지법은 지난달 8일과 11일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재립, 양영수 등 피해자, 유족 6명에게 1억5000만원 등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광주일보 8월14일자 7면〉

미쓰비시 측은 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30일 3차 소송 판결(이경자 등 원고 2명)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5월 2차 소송 판결(김재립 등 원고 4명)에 대해서도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광주·전남 지역에 신고된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유족 포함)는 광주 16명·전남 29명 등 모두 45명이다. 이 중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와 유족은 모두 11명으로 양극덕 할머니 등 5명이 제기한 1차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엄마와 오감발달놀이 5일 광주시 남구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열린 '오감발달놀이'에 참여한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몸풀기 체조를 하고 있다. 남구보건소는 9월 한달간 18~26개월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각, 촉각, 청각 등의 오감발달 교육을 펼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교대 부설초 교직원 자녀 입학 특혜

'결원시 교직원 등 관계자 자녀로 충원' 교칙...시민단체 '불공정'

광주교육대 광주 부설초등학교가 재학생의 자퇴·전학 등 결원이 생겼을 때 일반전형(공채 추천)이 아닌 해당 학교 교직원 자녀 등에게 전·입학 우선권을 부여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학교는 올해 일반전형 기준 경쟁률이 6.8대 1에 달할 정도로 입학이 어려운 곳이다.

5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이 초교는 올해

직원 자녀(1순위),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 및 운영위원의 자녀·본교 재학생 형제 및 자녀(2순위), 일반 학생(3순위) 순으로 충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이 학교 전체 재학생 중 전입자 수는 교직원 자녀(7명)·대학교 교직원 자녀(7명)·운영위원회 자녀(7명)·재학생 형제 및 자녀(42명) 등이다.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학생 결원 시 해당학교 교직원 자녀 등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공정한 행위"라며 "앞으로 공개추첨을 통해 전·입학을 실시하는 등 해당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택시운전사' 김사복 찾았다

이들 김승필씨, 김사복-힌츠페터 함께 찍은 사진 공개

"아버지 오월 묘역 묻혔으면"

"아버님(김사복)과 피터 아저씨(독일 기자 힌츠페터)는 전쟁터 같은 광주에서 함께 임무를 완수한 전우(戰友) 같은 관계였습니다. 사후에도 다시 만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영화 '택시운전사' 속 실존인물 김사복씨의 아들 김승필(58)씨는 5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버님과 힌츠페터, 5·18이 오랫동안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난주 화요일(8월29일) 광주 5·18기념재단을 방문해 힌츠페터 옆에 아버님을 안장하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날 그는 언론매체 인터뷰를 통해 부친과 힌츠페터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흑백사진을 공개하며 그동안 일었던 진위 논란을 잠재웠다. 광주시와 5월 단체·시민단체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5·18 옛 묘역 안장 데스크포스(TF)는 김씨로부터 공식 요청이 들어오면 대표자 회의를 소집할 방침이다.

김씨는 이날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관계자와 면담하고 현장 당시 부친의 행적을 담은 여러 기록물을 다음 달 국회에서 열리는 힌츠페터 추모 사진전에서 공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5·18기록관 측은 10월 16~20일 국회



위르겐 힌츠페터(왼쪽)와 김사복씨가 함께 찍은 흑백사진. 〈김승필씨 제공〉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힌츠페터 추모전이 끝나면 김사복 관련 기록을 광주로 옮겨오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5·18 기록관은 김씨에게 김사복씨의 사진, 글, 서적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980년 5월 아버지가 광주를 다녀오신 후 차가 찌그러져 있는 이유를 묻자 평소 점잖은 모습과는 달리 '어떻게 같은 민족을 죽일 수 있느냐'며 울분을 토하신 기억이 있다"며 "부디 사후에서라도 아버님과 피터 아저씨가 다시 만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김사복씨의 자료를 더 취합하고 5월 단체, 광주시민들의 공감을 얻으면 5·18 옛 묘역에 김사복씨를 안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희기자 kimyh@

성공비즈니스를 실현하는 리더들의 고품격 네트워크

제5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품격있는 강연문화를 선도합니다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는 각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를 초빙, 강의와 토론을 통해 국가와 지역 사회 주요 영역의 시대적 과제를 집중 탐구하는 고품격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명품 강사진으로 2017년 2학기를 엽니다!

이흥렬	박정자	정철	권은진	고규홍	이두현	김흥신	정부희	박재동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MC 중 한명이다. 1979년 라디오 프로그램 '가요행진' MC로 데뷔한 뒤 활발한 방송활동을 펼치며 대중들에게 웃음을 선물했다. 시트콤과 코미디 프로그램을 넘나들면서 시대를 풍미했던 방송인.	한국 연극계 거장, 국내 연극 무대를 이끌어온 배우다. 1962년 연극 '페트라'로 데뷔해 정상급 여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영영이별 영이별', '제 여자 이야기' 등 무대에 오르고 있으며, 영화 '마스터' 등 스크린 '박수건달'에서도 무게감 있는 연기를 선보였다.	국가대표 카피라이터. 대기업부터 몰란과 아미겟돈 등 영화까지 25년 광고 카피를 쓰고 있다. 정치광고계에 따라붙은 일인칭 '장본인'이자 '박림이 다르다'는 카피를 쓴 문재인대통령의 카피라이터.	케이블채널 온스타일 '도전 슈퍼모델'에 컨디티이라는 이름으로 출연. 17cm라는 모델치고는 작은 신장에도 패션쇼와 광고모델까지 섭렵하며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슈퍼모델.	나무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한국의 대표적 생태학자다. 전리포수목원에서 200년 세월 나무와 함께 살을 보냈다. 우리가 몰랐던 나무의 이야기, 나무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전하고 있다.	'수요일연 빨간 정미', '풍선', '세벽기차' 등 수많은 히트곡을 냈던 다섯손가락의 리더보컬. 이후 유학을 떠난 뒤 현재는 대학과 기업 등에서 왕성한 강연을 펼치고 있다.	정편소설 '인간시장'을 펴낸 소설가. 대한민국 최초의 밀리언셀러 작가다. 제15·16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소설을 넘어 수필, 시집, 콩트집 등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꼽힌다.	프랑스에 '파브르 곤충기'가 있다면 한국에는 '정부희 곤충기'가 있다. 사비를 털어 개인 곤충연구소를 마련하는 등 대중들에게 쉽게 곤충을 소개하고 있는 곤충 학자다.	근대 만화가 보여준 풍자 정신을 우리 시대에 계승한 만화가다. 국내 만화계의 거장으로 80년대 후반 민중화 세대의 진보의식을 대변한 만화 운동가이자 시사만화가.